



# ‘한판승 사나이’ 이원희 체전 광주대표로 뛴다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26·광주 유도회·사진)가 제88회 광주전국체육대회에서 유도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광주시유도회는 9일 “지난해 도하아시아게임 남자 유도 73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이원희를 광주시유도회 소속으로 영입, 전국체전에서 광주대표로 뛰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유도회는 또 이원희를 81kg급으로 돌리고 73kg급에 김재훈, -100kg과 무제한급에 남광우, 헤비급에 최성화를 영입, 전국최강의 전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광주시 유도회는 강천수 회장 사퇴 등 그동안 내용을 겪으며 침체에 빠졌던 부진을 털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광주 대표가 된 이원희는 지난해 도하아시아 게임을 앞두고 아테네 올림픽 이후 정신적인 공황과 부상으로 후배 김재범(21·용인대)에게 밀려 슬럼프에 허덕이는 등 유도인생의 고비를 맞기도 했다.

이원희는 특히 도하아시아게임 1,2차 선발전에서 김재범에게 연달아 패하며 ‘이원희 시대는 끝났다’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원희는 3차 선발전에서 김재범을 제압하고 극적으로 도하 아시안 게임행 티켓을 거

## 광주시유도회로 영입

## 전국체전 최강 전력 기대

며쥐었다.

정신적으로 재무장한 이원희는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1개임을 제외하고 4개임을 모두 한 판승으로 장식하며 2003 아시아선수권과 세계선수권, 2004년 아테네올림픽 제패와 더불어 4개 국제대회를 씩씩이 하며 한국 유도 사상 첫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무릎과 발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욱 값진 금메달이었다.

이원희는 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2연패를 이루기 위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원희는 “지난해 광주유도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은 힘이나마 광주시유도회가 재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체급 선수들과 마음을 모아 광주전국체전에서 유도 종합우승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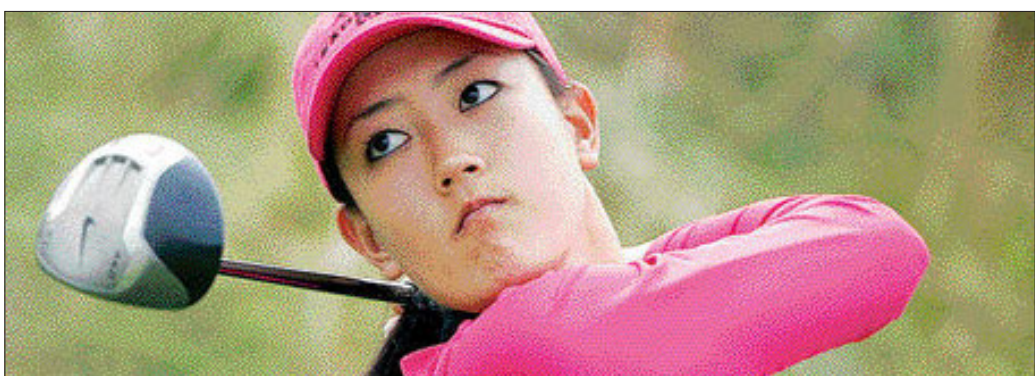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주요경력 및 수상

|      |   |
|------|---|
| 2002 | 오스트리아오픈 국제대회 1위                         |
| 2003 | 합가리오픈 국제대회 1위                           |
| 2003 | 대구 하계유도대회 개인전 1위, 단체전 1위                |
| 2003 | 일본 세계유도선수권대회 1위                         |
| 2003 |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1위                           |
| 2004 | 모스크바오픈 1위                               |
| 2004 | 아테네 올림픽 1위                              |
| 2004 | KRA컵 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 1위                    |
| 2005 | 독일오픈 1위                                 |
| 2005 | 리본월드드래그유도대회 1위                          |
| 2006 | 제32회 회장기유도대회 2위                         |
| 2006 | 제45회 전국남녀체급유도대회 겸 아시안게임선발전 1위(아시안게임 참가) |
| 2006 | 아시안게임(카타르도하) 1위(그랜드슬램 달성)               |

### 이원희 프로필

▲생년월일=1981년 7월 19일 ▲출신교=보성중·고등학교-용인대-마사회 ▲가족사항 1남 1녀중 막내 ▲주특기=빛당겨치기, 업어치기 ▲별명=한판승의 사나이 ▲혈액형=B형



# “3전4기 꼭 컷 통과”

## ■ 위성미, 12일 PGA 소니오픈 출전

하와이에 ‘미셀 주간’이 돌아왔다.

해마다 1월 둘째 주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 2004년부터 출전해온 위성미(18·나이키골프)가 올해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12일(한국시간)부터 나흘동안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라이골프장(파70·7천60야드)에서 열릴 소니오픈은 지난 3년 동안 그의 출전으로 뉴스의 초점이 됐다.

15세 때 첫 참가한 2004년 대회에서 미셀 위는 2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때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작년에도 2라운드에서 68타를 뽑아냈다.

두 차례나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낸 덕에 이 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고 함께 경기를 치렀던 PGA 투어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언젠가는 컷을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줄을 이었다.

하지만 네 번째 출전인 올해 대회를 앞두고는 이런 기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남자 대회에서 보인 경기력이 수준 이하였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이어진 세 차례 남자대회 출전에서 위성미는 장기간 장타력은 실종됐고 정확도마저 똑 떨어져 남자 선수들과 경쟁 자체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타력과 샷의 정확도가 갈 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혹평도 나왔다.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격려 대신 ‘쇼는 그만하고 여자대회에 전념하라’는 비난마저 쏟아졌다. 따라서 이번 소니오픈은 미셀 위에게는 매우 중

### ■ 위성미의 소니오픈 성적

| 년도    | 성적    | 결과      | 페어웨이 안착률 | 그린 적중률 | 평균 퍼팅수 | 드리버샷 비거린(야드) |
|-------|-------|---------|----------|--------|--------|--------------|
| 2004년 | 72-68 | 1타차 컷오프 | 67.9%    | 55.5%  | 1.700  | 271.0        |
| 2005년 | 75-74 | 7타차 컷오프 | 54.3%    | 52.7%  | 1.895  | 267.5        |
| 2006년 | 79-68 | 4타차 컷오프 | 50.0%    | 58.3%  | 1.762  | 286.0        |

요한 대회가 될 전망이다. 다시 한번 참담한 실패를 겪는다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온 ‘개척자’라는 이미지는 설 땅을 잃게 된다.

겨우내 샷을 가다듬은 위성미는 집에서 지적인 와이알라이골프장이 눈을 감고도 코스를 흰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데다 두 차례나 언더파 스코어를 작성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대회 기간 시속 50k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일기예보는 우울한 소식이기도 하다.

한편 시즌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이 전년도 투어 대회 우승자끼리만 치렀던 반면 144명의 선수가 출전해 사실상 시즌 첫 대회나 다름없는 소니오픈은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비제이 싱(피지)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첫 대회를 공동 8위로 산뜻하게 마친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시즌 첫 우승컵을 노리고 있다.

아이언샷이 눈에 띄게 좋아진 최경주가 그린 플레이만 생각대로 풀린다면 충분히 우승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퀵리파인스플을 통해 PGA 투어에 복귀한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도 올해 첫 선을 보인다.

작년 대회 우승자 데이비드 톱스(미국)와 세계랭킹 2위 짐 퓨릭(미국), 세계랭킹 9위 조프 오길비(호주), 세계랭킹 10위 투크 도널드(잉글랜드), 장타자 J.B. 홉스와 채드 캠벨(이상 미국), 트레버 이멜만(남아공)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제2 김연아’를 꿈꾸며

9일 고양시 덕양구올림픽리에서 열린 전국남녀 종합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시니어 쇼트 프로그램에서 3위를 한 광고고 신예지가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LPGA 김송희 2년간 10억 후원 계약

### 힐라코리아와 조인식

작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부 투어에서 최연소 우승과 상금왕, 다승왕, 신인왕을 싹쓸이하면서 올해 LPGA 투어 신인왕 후보 1순위로 꼽히는 김송희(18)가 1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후원 계약을 따냈다.

LPGA 투어 통산 6승을 거둔 한희원(29)과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각각 1승씩을 올린 문현희(24), 임은아(24)를 후원하고 있는 힐라코리아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에서 김송희와 스폰서 조인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1년에 5억원씩이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총액 10억원에 이른다.

최근 LPGA 투어에서 우승 선수가 쏟아지면서 몸값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신인 선수에게 힐라코리아가 선뜻 10억원의 거금을 투자한 것은 김송희가 지난 잠재력 때문이다.

한편 이날 조인식을 마친 직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김송희는 로스앤젤레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윌튼헤드아일랜드의 골프 아카데미를 오가며 훈련을 하다 다음 달 하와이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시즌 개막전 SBS오픈에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최경주 랭킹 27위

### 지난주 보다 2계단 올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인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에서 톱10에 입성한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의 랭킹이 소폭 상승했다.

9일(한국시간) 세계프로골프투어연맹이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 최경주는 지난주 29위에서 2계단 뛰어오른 27위에 랭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 우승자인 비제이 싱(피지)은 7위에서 5위로 도약했고, 준우승을 한 애덤 스콧(호주)은 필 미켈슨(미국)을 밀어내고 4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 양용은(35·게이지디자인)은 33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 프로야구선수협 사단법인화 추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는 8일 대전에서 2007년도 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사단법인 등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수들의 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 1월 인통 끝에 출범한 선수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7년만에 법적단체로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단법인을 추진중이다.

선수협회는 또 자유계약선수(FA) 제도 및 비합리적인 야구규약의 전면 개정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하고 12월 비활용기간 선수에 대한 감독자 회의 결과는 올해 진행상황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으며 어린이 야구교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1차 정기이사회에는 장성호(KIA)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